

# 내 생애 단 한번뿐인 특별한 날



직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나이 : 1972년생  
 신장 : 182cm, 체중 : 65kg  
 외모 : 매우 스마트해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어설피름.  
 성격 : 무척 수줍음을 많이 타나 이상형의 여성을 보면 집념의 사나이로 변신  
 특징 : 주체할 수 없는 박학다식

뚝뚝씨와 미모양의 결혼을 축복이라도 하듯 새 하얀 눈은 참으로 소담스럽게도 내린다. 그러나 겨울의 신부, 미모양의 고운 자태 앞에서 함박눈의 화사함은 맥을 못 춘다. 광채를 뿜어내는 듯한 미모가 한 발 한 발 가까이 다가올수록 뚝뚝씨, 동공 확대증과 심장 벌렁증에 기절할 듯 행복하다.

“어쩐... 신부가 넘 이쁘다.”  
 “그런데, 둘이 닮은 거 같지 않아요? 분위기가 닮았나? 부부가 닮으면 잘 산다는데, 참 잘 어울려요.”  
 하객들의 말을 엿듣던 박박사, 펜스레 심사가 뒤틀린다. ‘어디서 주위들은 건 있군. 성격이나 체형이 비슷한, 그러니까 유전적 특성이 비슷한 부부일수록 행복지수가 높다는 건 맞는 말이야. 그런데, 저 애들이 닮았어?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아니지, 개가 풀을 뜯어먹는 건 장청소를 위해서 가끔씩 하는 웰빙 액션이니까 그걸 욕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하는 건가...?’  
 잘 나가다 엉뚱한 쪽으로 생각이 빠져버리

는 건 아무래도 유전인 모양. 박박사와 뚝뚝씨 너무나 똑같다.  
 빼딱선을 타기 시작한 박박사의 심통은 폐백 받는 자리에서도 계속된다. 새신랑 새신부 앞에서 겨우 한다는 덕담 왈,  
 “에... 부부란, 공생관계 같은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 철저하게 수지타산에 맞게 돕고 살아야 한다는 얘기지. 다들 알겠지만, 열대지방에 사는 수도머क्स 개미는 쇠뿔아카시아를 괴롭히는 온갖 곤충을 제거해 줘. 워낙 성질이 사나워 곤충은 물론 사슴이나 말갈이 큰 동물조차도 나무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막아버리지. 하지만 절대 공짜는 아니다. 아카시아 가지에 있는 꿀을 먹기 위해서 나무를 지켜주는 것뿐이야. 아카시아 역시 단백질이 없는 꿀을 줘서, 개미가 곤충을 잡아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교묘하게 유도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내 말은 어차피 부부라는 건...”  
 폐백 분위기를 일순간에 싸~하게 만드는 박박사의 일장연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진 친척들, 박박사의 입을 막느라 안간힘을 쓴다.  
 “아이고, 우리 박박사는 덕담도 강의하듯 하네, 새색시가 이해해요. 강단에 너무 오래 있었어.”  
 “맞아요, 맞아요... 뚝뚝아, 그러니까 도와가며 잘 살라는 말이다. 고모 말 다 알아들었지?”



“아... 네, 네.”

뭔가 찝찝한 감이 없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바다 건너 코발트빛 열대의 해변에 단 둘이 서게 된 두 사람. 미모, 넘치는 행복감을 주체할 수가 없다. 반면에, 푹푹씨는 무척이나 긴장한 듯 보인다.

“오, 아름다워라... 푹푹씨, 우리 앞날도 이런 빛깔이겠죠? 아이, 근데 왜 이리 하품이 나오.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시차 땀에 그래. 한국이랑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집중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해지며 식욕과 체력 저하되는 등의 제트레그(Jet lag), 그러니까 시차증후군을 겪게 되는 거야. 대내 아래 시상하부에 있는 ‘마스터 신경세포’는 주기적으로 각각 다른 양의 PDF라는 신호를 내보내는데, 이 신호를 받는 신경세포들은 PDF가 많으면 아침으로, PDF가 적으면 저녁으로 인식하거든.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밤낮이 바뀌었는데도 PDF가 이전과 똑같이 분비되면, 몸이 놀래서 생리적인 무질서 현상을 나타내는 거야.”



“푹푹씨!! 나 푹푹씨 푹푹한 말 참 좋아하는데, 오늘은 진짜 아니다. 분위기 급설렁이야. 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고, 피 무슨 예프? 그런 말이 나와요? 또 얼굴은 훈련병처럼 잔뜩 긴장을 해

가지고는. 어디 아픈 거예요?”

“아니, 정말 긴장해. 어디 알통 볼래?”

“근데 표정이 왜 그래요... 우리 수영할래요?”

“수영 못해.”

“피, 그럼 칵테일 한 잔?”

“술 못 마시는 거 알잖아.”

“그럼, 다이빙?”

“안 돼. 압축공기통을 달고 수심 30m 이상 깊이로 들어가면, 술 취한 것처럼 몽롱해지고 사고력, 판단력, 기억력이 흐려지다가 급기야는 황홀감에 사로잡혀 무서운 게 없어질 수도 있고, 더구나 사리판단이 극도로 흐려져 응급사태에도 대처하지 못하는 ‘질소마취’ 현상이 올 수가 있어. 또

너무 급하게 물로 올라오면 잠수병에 걸려서 손발이 마비되거나...”

“그만, 그만!! 정말 너무 한다 푹푹씨. 우리가 다이버도 아니고 해녀도 아닌데, 무슨 잠수병 타령이야. 그럼 신혼여행 와서 뭘 하자는 거예요. 다 싫다고 하면!”

“...그냥 쉬지 머.”

하는 수 없이 비치의자에 앉아 가만히 빈둥거리게 된 두 사람. 미모양, 지금의 상황이 못마땅해 죽을 지경이다. 그러나 푹푹씨는 여전히 잔뜩 경직된 표정으로 절도 있게 주스만 마시고 있다. 그러다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벌떡 일어난 푹푹씨, 허겁지겁 호텔로 뛰어 들어간다.

그리고 잠시 후 나타난 건, 붉은 악마가 아닌 붉은 푹푹씨!! 새빨간 색의 민망한 수영복에, 수영모자 그리고 투우사 망토 같은 새빨간 타올까지 두르고는 한껏 당당해 진 표정으로 미모양 앞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푹푹씨, 싫은 소리 한 번 했다고 지금 이게 도대체 뭐예요? 당신이 떡볶이야?”

그러나 아랑곳 없는 푹푹씨. 어디서 용기가 났는지, 한껏 경직돼 있던 이전의 표정 대신 자신만만함이 온 얼굴에 가득 찼다. 그리고는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갑자기 미모에게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뜨거운 키스를 퍼붓는 게 아닌가.

“미모, 사랑해!”

“푹푹씨, 왜 이래요. 창피하게.”

말은 그렇게 해도, 한껏 행복에 겨워진 미모양, 푹푹씨의 품에 안겨 묻는다.

“그런데, 이런 용기는 어디서 난 거예요?”

“흐흐흐... 빨간색 옷을 입으면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

테론이 많이 분비돼서 자신감, 지배력, 공격성이 커

지거든. 실제로 붉은색 유니폼을 입으면 스포츠

경기의 승리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보고서가

‘네이처’ 지에 실린 적도 있어. 그런데 실제

로 입어보니, 그 말이 사실 인


걸? 미모 어때... 나 맘에 들어?”

“아이, 몰라 몰라... 푹푹씨를 평생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빨간 옷만 입게

할테야, 겨울엔 빨간 내복만 입히구.”

“우하하하... 고마워 미모. 우리 평생 뜨겁

게 사랑하며 살자구.” 



〈푹푹씨의 박학다식은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